

## News

### '이자장사' 경고에 대출금리 낮추는 은행들

디지털타임스

주요 은행들, 이복현 금감원장의 과도한 이자장사 용납 불가 경고에 금리 인하 관련 내부 검토 돌입...케이뱅크가 가장 먼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최대 연 0.41%p 낮춰... NH농협은행, 오는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p 확대할 예정... 우리은행은 최고 연 3.20%의 금리 제공 특판 정기예금 출시

###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8월 나온다

한국경제

정부, 올 3분기 정책 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의 40년 만기 상품에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월 지급액이 기본형 주택연금보다 21% 많은 저소득층 전용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4분기에 저소득층 대상인 우대형 주택연금 집값 요건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원리금 상환액이 더 적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8월부터 도입

### 씨티은행 8조원 신용대출 누가 가져가나...은행들 쟁탈전

연합뉴스

한국 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에 따라 8조원 규모의 신용대출 대한 다음달부터 시작...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를 유력 후보로 두고 최종 조율  
최근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막판 변수로 작용... 이달 중 계약이 최종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

### 국내은행, 美보다 이자이익 의존도 2배 이상 높고...총당금은 5분의 1 수준

한국경제

국내 4대은행, 미국 4대은행과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 결과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구조... . 요구불예금과 변동금리 대출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  
올해 이자이익 비중은 90.6%로 작년 85.6%보다 이자이익 의존도 커져... 금융당국으로 비이자이익 확대도 쉽지 않다는 지적 존재

### 보험사 이르면 9월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보험' 출시...무보장성 순수대출

헤럴드경제

보험사, 이르면 오는 9월 보험 가입자 중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보험 출시... 보장성이 제외된 순수 신용대출상품...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중  
4분기 출시를 목표... 근로자햇살론과 유사한 구조로 보험사와 상품 설계 협의중... 햇살론 보험 설계 과정에 자영업자 포함시킬지 놓고도 보험사와 협의중

### 4세대 실손 반값 할인 이달 종료...흥행 저조에도 연장 불투명

조선비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보험료 할인 혜택 연장 관련 구체적인 논의 오가지 않아...당국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야하는 사안이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  
회사마다 입장이 달라 연장하기 쉽지 않을 것... 할인 혜택 종료되면 전환 속도가 다시 작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2~3세대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 WM 힘 줬던 증권업계...증시 부진에 수익 감소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증권사, 연초 방침 짚은 WM 분야에서도 부진...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의 증가세 정체되며 증시 부진의 그늘 벗어나지 못해...  
IB 5곳의 1분기 WM 수수료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 감소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한국투자증권... 전년동기대비 20.4% 감소한 401억 651만원 기록

### 두나무, 리츠 투자로 강남역 사옥 마련

한국경제

코람코자산신탁, 리츠 통해 서울 강남역 역세권 빌딩 에이플러스에셋타워 매입... 두나무가 리츠의 최대 투자자로 나서... 두나무는 이 빌딩에 입주 예정  
최근 사세 급격히 커지며 사옥 마련의 필요성 제기... 5년여에 걸쳐 전 층을 사용하겠다는 계획... 취득세와 보유세 등 비용 절감 예상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